

日本의 養鷄産業



(III)

정 선 부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 육종반식 연구관〉

6. 養鷄産業에 對한 福祉共濟制度

日本 養鷄協會는 全國의 養鷄經營者의 福利增進을 위해서 1968년부터 養鷄福祉共濟制度를 창설하였다. 이 制度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여, 양계가 상호간의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기르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1) 養鷄福祉共濟制度의 加入

이 양계복지공제제도는 전국의 養鷄農家, 이들의 가족, 종업원, 그리고 양계협회 및 양계협회소속의 양계전문단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제도의 특징은 생명보험과 종합상해보험을 겸한 일종의 공제제도(共濟制度)로서 매월 적은 돈을 공제비로 납부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방법은 加入者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養鷄專門團體(例: 우리나라의 경우 각도 양계협회지부)에 신입서에 필요사항을 기입 날인한 후 공제금과 같이 접수시킨다. 그 후는 모든 수속이 완료되어 일본양계협회에 등록되고 가입증이 소속단체를 통하여 본인에게 전달된다. 이공제제도가 보험과 다른 것은 보험의 역할에 추가하여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상호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제제도는 매년말로 결산되며 불입금이 지불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다음 해에는 다시 불입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는 점이다.

2) 養鷄福祉共濟制度의 內容

이 제도는 생명보험과 교통사고, 화재, 풍수해, 지진, 작업에 의한 불의의 제해에 대한 상해보상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회원 1인당 월 1,440원(900圓)이며 가입자격으로는 養鷄家, 및 종업원과 그 가족 양계전문단체직원으로서 만 14세부터 65세까지의 사람으로서 현재 건강하게 양계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특징과 利點

(1) 세법상의 특징

공제금을 사업주가 지불하는 경우 전액을 경비로 처리하며 공제금을 종업원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 "생명보험료공제"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세금이 경감된다.

(2) 가입자가 만일의 사고로 죽는 경우

보험료 240만원이 지불되며 따라서 상속인 1인당 240만원까지는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되어있다.

한편 공제금의 급부(給付)사유가 업무상의 것이든지 업무 이외의 것이든지 간에 공제금이 지불되며 기타 사회보험공제금의 수령과 관계없이 공제금을 지불받을 수 있다.

4) 공제금의 지불기준

(1) 불의의 재해 급부 대상이 되는 재해는 다음과 같다.

- (가) 교통사고(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의한 불의의 사고)
- (나) 화재사고
- (다) 자연재해(풍수해, 지진 등)
- (라) 불의의 추락사고
- (마) 고체 및 액체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 (바) 까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 (사) 기타 작업 중의 불의의 사고

〈表 15〉 共濟金の 支拂基準

共濟區分	保障金	給付事由
보통사망 조 위 금	160만원	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
재해사망 조 위 금	320만원	교통사고, 화재등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통질병 위 문 금	160만원	질병에 의해 불구상태로 되는 경우
재해질병 위 문 금	360만원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불 구가 된 경우
상해 위 문 금	16~ 112만원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다 친 경우
제해입원 위 문 금	1일에 2,400원	교통사고, 화재 등 불의의 사고로 5일이상입원한경우

- (아) 법정 전염병
 (자) 치료목적 이외의 내외과적수술시의 합병증
 (차) 치료상의 사고 및 치료조치후 합병증
 (카) 타살 및 타인에 의한 사고
- (2) 불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양쪽 눈의 시력을 영구히 상실한 경우
 (나) 언어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다) 양팔을 팔목 이상 절단한 경우
 (라) 양다리의 발목 이상 절단한 경우
 (마) 한쪽 손목과 한쪽 발목이 절단된 경우
 이상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금 320만원(200만엔)을 보상받을 수 있다.
- 이상의 제도를 우리나라 양계협회가 주동이 되어 실시할 경우 양계업자 상호간과 양계업자와 양계관계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간의 상부상조의 기풍이 진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7. 養鷄協同組合

日本の 農業協同組合은 그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운용면에서도 비교적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오늘날 日本의 農村發展에 큰 공헌을 한 要素中의 하나가 바로 農業協同組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農業協同組合이 日本의 農業發展을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해 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日本の 養鷄協同組合 역시 農業協同組合과 같이 日本의 養鷄發展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필자가 방문한 여러 곳의 養

鷄協同組合中 가장 잘 운영되고 있으며 東京의 養鷄生産物 消費量의 約 60%에 해당하는 養鷄生産物을 生産하여 千葉縣一部와 東京에 供給하고 있는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 소개할 養鷄協同組合은 日本 九分最南端에 위치한 出水養鷄協同組合이다.

1) 出水養鷄協同組合의 발전과정

本組合은 1939년에 전업양계가 8명이 주동이 되어 처음에는 사료의 공동구입과 생산물의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일종의 협동체제로 발족하였으며 1941년 제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사료수급이 악화되어 1945년까지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1947년 즉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2년 후부터 발기인 8명이 조합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1957년부터 1961년까지 제 1차 5개년 사업진흥계획기간 중에 처음 8명으로 구성된 양계협동조합이 조합원수가 68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조합에 종사하는 직원수가 32명이 되었고 산란계 196천수, 육계 15천수의 종계수수를 갖는 사업규모로 확장되어 자본금이 12,956천원(日貨 8,098천엔)이 되었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 2차 사업진흥계획기간 중에는 식육처리장(食肉處理場)을 설치하고 계란의 처리를 기계화 하였으며 育雛場 2個所와 種鷄場 2個所를 설치하였고 組合員數는 538명, 産卵鷄 369천수, 육계 72천수의 종계를 갖이게 되었으며 一年間 사업취급액수는 무려 24억원(日貨 15억엔)에 달하였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수는 132명에 이르게 되었다. 1967년부터 1971년 까지의 제 3차 사업진흥계획기간 중에는 조합원수는 378명으로 축소되었으나 産卵鷄 788천수, 육계 468천수의 종계를 확보하였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수는 209명으로 증가되어 1년간 사업취급량은 65억원(日貨 약 40억엔)에 달하게 되었으며 전자계산조직을 도입하여 양계의 경영분석, 양계생산물의 수요량추정과 이 수요량을 공급하기 위한 양계사육적정규모들을 계산하게 되었으며 4개소의 종계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1972년부터 시작되는 제 4차 사업진흥기간 중에는 양계농가 1호당 연간수익을

800만원(日貨 500만엔)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적극추진한 결과 1974년에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1975년부터는 양계조합에 속한 각부서를 한개의 주식회사형태로 발전시켜 지금은 양계협동조합이 마치 1개의 재벌과 같이 성장하게 되었다.

2) 出水養鷄協同組合의 組織

出水養鷄協同組合의 組織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현재 이 양계협동조합은 월산 6,000톤의 사료공장과 63대의 운수차량을 보유하고 2개의 도계공장(屠鷄工場)을 갖고 있으며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모든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양계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계란을 조합에 납품할 경우 계란 1kg당 30원을 적립시키고 육계를 조합납품하는 경우 육계 생체 1kg당 25원율의 무적으로 적립하였다가 양계생산물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떨어질 때는 본인이 적립한 돈과 정부에서 조성한 안정기금을 합쳐서 생산자의 판매가격을 보상해 주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최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안정된 양계경영을 해나가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양계생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협동조합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8. 養鷄産業展

日本の 養鷄産業展은 연례행사로 매년 東京의 流通センター에서 실시되고 있다. 금년도의 日本養鷄産業展은 3月 17일부터 3月 19일까지 3日間 日本의 東京 流通センター에서 열렸다. 여기에 참가한 업체는 총 73개 업체로서 중계회사가 7개 회사로 전출품자의 10%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은 양계기구 제작회사, 동물약품회사, 사료공장 등이었으며 기타 양계관계잡지회사, 양계관계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

養鷄産業展의 내용으로는 첫째 전시회인데 여기서는 種鷄의 선전장, 양계관계기계기구의 선전장, 사료회사의 제품선전장과 약품회사의 각종동물, 약품선전장 등으로 구분하여 전시

하고 있었다. 특히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곳은 각종 자동장치, 즉 자동사료급여장치, 자동급수장치, 계란포장기계, 계란의 생산자 및 생산년월일 표시 장치 등이었는데 이 자동장치들 중 1년 동안 각 제작회사들이 개발한 신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양계업자들은 전시장에서 이들 기구를 시험해보고 즉석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있어 계약기구제작회사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 전시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중계의 선전은 주로 경제능력검정성적을 이용하고 있는데 日本의 국립기관에서 개량한 農林 101號와 農林 502號의 선전은 日本 國產鷄增殖센터가 주동이 되어 대규모 선전을 하고 있었다.

둘째는 전국양계인 대회로서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양계관계대회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대회로서 2시간 동안에 양계에 대한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관과 양계업자간에 양계산업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양계정책의 방향을 설명한다.

셋째는 토론회로서 2시간 30분 동안 앞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부문별로 토론을 전개하여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고 있었다. 이 토론에서는 상당히 진지한 토론이 전개되는데 일반양계업자의 지식수준은 상당한 정도에 달한 것으로 보였다.

넷째는 양계강습회로서 금년도에는 4명의 연사가 출강하였는데 연제로는 「사료수급의 현상과 금후대책」으로 일본 농림성 유통사료과 지도관의 강연이 있었고 부로일러 수급의 현상과 금후대책에 대한 연제로 일본 부로일러 산업연구소 소장의 강연이 있었으며 「양계사료와 사료안정법의 시행」이란 연제는 농림성 유통사료과장이 강연했으며 「계분악취방지현상과 그 대책」이란 연제를 갖고 「씨스오까」 양계시험장장의 강연이 있었다. 대체로 일본의 양계산업전은 일본 양계업계의 큰 행사로 되어 있고 지방의 양계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국의 양계산업전을 개최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며 가까운 시일안에 양계산업전을 갖게 될 것을 바란다.